



비싼 대가를 치렀지만, 피를 먹고 자란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후퇴했다고 평가받았지만 후퇴한 만큼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분노와 한탄, 망연자실 뒤에 우리의 민주주의는 '현재진행 중'이라는 소중한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2016년, 청소년들이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김정환)



차례

02 여는 글

1부 **m**맛있는 **S**사람들 **G**간디인

06 생활관 이야기 잠 좀 자자, 잠 좀! 글 / 최유경

08 MSG 웰컴 투 소모임 월드 글 / 이상민

2부 간디학교 소식

16 사설 1 우리는 바뀔 수 있을까? 글 / 김민석

26 사설 2 규칙 백지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 글 / 박우제

22 못다 한 이야기 그 사람들의 장소 글 / 김담

3부 일상다반사

20 화제의 인물 그의 정치는 끝나지 않았다 글 / 이예수

38 특집 1 풍악을 올려라~ 글 / 권윤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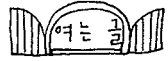
44 특집 2 청소년이 주인이다! 글 / 이현결

48 시국 선언문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⁶학년 일동

4부 이모저모

50 스케줄러

56 기자 후기



가을에서 겨울로

김민석 편집장(6학년)



이 사진은 임의로 넣은 것입니다.
적당한 사진 보내주세요.

이래저래 산만한 가을입니다. 사실 가을이라 하기엔 조금 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현 시국 못지않게 학교는 또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이번 2학기가 시작되자마자 2016년 집행부에서 '규칙 백지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현 규칙을 다시 되돌아보고, 우리가 직접 우리에게 필요한 규칙을 주체가 되어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전자기기, 외출, 매점 규칙이 모두 풀리는 파격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우리들이 실제로 백지화 상태를 겪어 보고, 그 과정에서 불편함이 생기고, 그 불편이 공론화되어 해결책에 대한 논의를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규칙을 다시 만들어보자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겠지만, 아직까진 커다란 움직임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지화를 즐기고 있는 듯합니다. 이렇다 2학기가

마무리되고, 2016년 집행부 임기가 끝나면 흐지부지될까 걱정이 큼니다.

백지화에 이어 또 다른 일을 진행 중입니다. 외부 컨설턴트 세 분을 모셔 학교 컨설팅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근 3년간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임없이 터지며 회의를 간담회를 하고, 마무리를 짓는 과정에서 한계를 느꼈고, 현재 전반적인 학교의 모습을 외부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조언을 들어 보자는 교사회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8월부터 10월까지 컨설팅이 진행되었고, 다가오는 11월 19일에 컨설팅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삼주체 대토론회를 연다고 합니다. 하지만 컨설팅 진행 과정에 대한 공유도 없었고, 학생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아 과연 우리 학교가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고 시도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이렇듯 이번 2학기는 큰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컨설팅과 백지화는 그중에서도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멈춰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현재 우리는 불만은 많지만 해결하려 하지 않고, 각자의 일에만 급급하며, 백지화, 컨설팅 등 학교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는 일들에 무관심합니다. 지금은 당장에 고여 있는 불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던고 우리에게 더 나은 학교를 위해 고민해 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함께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주장해야만 우리가 꿈꾸던 학교를 비로소 실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꿈틀대는 학교만큼 '일상다반사'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이번 호부터는 4학년 박성현 사진 기자가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4학년의 유일한 사진 기자였던 박성현 기자가 떠나기는 바람에 저는 4학년 중 유일한 기자로 남아 외로이 편집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많은 부담을 안고 시작한 이번 호는 몇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해 봤습니다. 이번엔 신입 기자를 포함해 기자 개인이 쓰고 싶은 기사를 써 보기로 했습니다. 일상다반사에 조금이라도 더 흥미를 붙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기자들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한 학기 두 소식지를 냈던 <간디in>은 이번 학기엔 한 소식지만 냅니다. 기자들이 매일같이



기사 쓰라, 회의하라, 일상다반사에 치여 살던 생활에서 벗어나 여유롭게 기사를 쓰길 바랐지만,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1차 테드라인이었던 11월 6일 기사를 보낸 사람은 세 명뿐이었습니다. 테드라인 일주일 전 가정학습 주간에 기사 좀 쓰라는 저의 말을 무시한 한 기자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다행히도 2차 테드라인이었던 11월 15일엔 모두 기사를 보냈지만, 앞으로 일상다반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지난 4, 5년 동안 함께했던 5학년 김민석 기자와 이예슬 기자가 일상다반사를 졸업합니다. 그동안 좋은 기사 써 줬던 정신적 지주 두 명이 함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매우 슬프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수고해 준 두 기자를 박수치며 보냅니다!

이번 호를 마무리하며 편집장인 제가 감을 잘 잡지 못하고 기자들을 이끌지 못했다는 마음이 큼니다. 생각보다 부담감이 컸습니다. 계획했던 것만큼 나오지

않아 기사 규모를 줄이는 모습, 바쁜 스케줄 탓에 꾸역꾸역 기사를 완성하는 모습, 테드라인 직전까지도 기사 방향을 잘 잡지 못하는 기자들을 보며 내가 이리려고 편집장을 했나,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어서 빨리 내려가야겠습니다.

어느덧 2016년도 막바지로 접어들습니다.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다사다난한 하루가 되겠죠.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 없는 현 시국을 보며 어른이 되면 더 좋을 거라는 희망도 사라져 갑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뿐이지 않을까요. 지난 11월 12일에 있었던 집회에서 100만 명의 국민들이 촛불과 플래시를 켜고 광화문 광장을 밝혔던 모습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아직은 살아 있구나 싶습니다.

우리 모두 더 좋은 사회를 위해, 더 좋은 미래를 위해, 더 좋은 학교를 위해 살아봅시다. ♡



1부 **m**멋있는 **S**사람들 **G**간디인

생활관 이야기 잠잠 자자, 잠 줌! 글 / 최유경

MSG 웰컴 투 소모임 월드 글 / 이상민





잠 좀 자자, 잠 좀!

최유경 기자(3학년)

목학이 끝나는 밤 9시부터 기숙사는 학교 못지않게 생기가 도는데, 그중 8할은 줄줄이 이어지는 각종 방송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모든 방송의 이유는 각종 동아리나 자치 모임들의 회의 시간 공지, 기숙사 내 회의 장소를 먼저 차지하려고 9시 무렵이면 방송 기기 앞에 줄서 있는 각종 모임 대표들의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학교에 현존하는 18개의 동아리 중 절반인 9개의 동아리가 기숙사에서 정기 회의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필자는 이렇게 기숙사의 거의 모든 공용 공간을 차지하는 여러 회의를 3년간 생활화하며 항상 기숙사의 본 목적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개인 공간에서 '쉽'을 가지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기숙사에 올라와서도 학교만큼이나 바쁘게 사는 학생들. 학교의 연장선이 되어 버린 기숙사, 쉴 틈 없는 하루에 대해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우선 학생들의 이 문제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를 위해 전교생 대상의 설문을 돌린 결과, 문제를 의식하고 있다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45퍼센트가 인식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기숙사에 살고 있는 학생들 중 절반에 가까

운 인원이 기숙사 공간에서의 회의 문화에 문제를 느끼고 있다는 말이 된다. 문제를 느낀다는 학생들은 회의 때문에 기숙사가 소란스러워지고, 쉬는 공간에서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그중 소수는 규칙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반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불편한 점이 회의를 한다고 해서 생기지는 않는다고 대답했고, 소란스럽긴 하지만 학교에서는 시간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다수를 차지했다.

설문지의 문항 중 기숙사 공간의 목적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기숙사는 '쉬는 곳'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기숙사에서 빈번히 진행되는 회의로 이 목적이 침해된다면 어쩌서 기숙사에서의 회의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을까? 그에 대해 기숙사에서 정기 회의를 가지고 있는 동아리 중 하나인 미지정의 회장 김예현양(3학년)은, 자신도 기숙사에서의 회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동아리 구성원의 시간이 학교에서는

도저히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리고 이 대답이 기숙사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모임들의 이유다. 아무래도 많은 인원일수록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학교 일과 중에서는 자치 모임의 시간을 따로 내고 모두의 시간을 맞추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기숙사 공간의 목적을 흐린다고 해서 강압적으로 회의를 규칙으로 규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회의를 해야 한다며 기숙사에서 쉬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불편감을 계속 끼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자치 모임들의 간극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좁힐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대립하는 두 의견의 타협점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설문지 항목 중 '기숙사 공간에서 회의를 함으로써 일어나는 문제들의 해결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응답자가 '되도록 목학을 사용하며,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두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규칙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냐는 물음에는 전체 응답자 중 75%가 반대했다. 결국 학생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해결 방법은 기숙사 구성원 서로가 편안할 수 있도록 강제나 규제가 아닌 약속이 되면 좋겠다는 뜻이다. 더불어 한술밥을 먹고 같은 곳에서 잠을 자는 가족을 조금 더 배려하고 생각하고 약속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필자가 본 주제로 설문하고, 기사를 쓰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생각보다 현재의 상황에 불만을 가진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다. 몇 년간 자연스럽게 이어져 오며 이제는 기숙사에 깊게 뿌리 내린 문화가 되었기에 아무도 불만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지만, 몇몇은 분명히 기숙사의 목적이 학교 일과의 연장선이 되어 버린 현재를 불편해하

고 있는 것이다. 아무도 제기하지 않는 문제는 결국 지속되기 마련이다. 학교 생활의 '집인' 기숙사가 한 해를 또마 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고단한 학교 생활을 마치고 조금 더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길 바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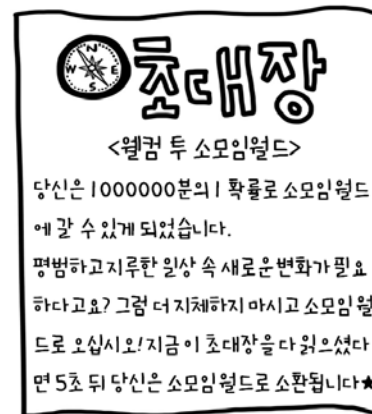


웰컴 투 소모임 월드

이성민 기자(1학년)

요즘 학교에는 새로운 소모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잘한 절차들이 많은 동아리와는 다르게, 소모임은 만들고 싶을 때라면 언제든지, 인원수에 상관없이 만들 수 있는 집단입니다. 기사 속에서 말하는 소모임 월드란 소모임들이 각각 하나의 왕국 형태로 있는 곳입니다. 학교에는 기사에 나온 소모임 말고도 더 많은 소모임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상다반사의 기자인 나, S. 나의 하루하루는 매일 똑같이 흘러간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먹고, 수업을 듣고, 다시 밥을 먹고, 또다시 수업을 들으며 시간 날 때면 기사나 쓰는, 정말 평범하고 지루하기 짝이 없이 살아간다. 특별하고 신나는 일 어디 없나. 오늘도 어김없이 나는 기상 송을 들으며 잠에서 깨어나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 앞으로 한 통의 초대장이 왔다.



앵?소모임 월드?그게 어딘데?5.....4.....3.....2.....1!!!
으아아아악!!!

눈을 떠 보니 난 처음 보는, 아주 낯선 곳에 떨어져 있었다. 여기가 어디지?당황한 내 눈에 들어온 건 <소모임 월드 안내도>라고 쓰여 있는 지도였다.

진짜 소모임 월드에 온 거야?아니, 그런 곳이 있기는 했어? 굉장히 사기당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 속에서 특별하고 신나는 일을 찾던 나에게 이토록 좋은 기회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난생처음 들



어 보는 미지의 세계에 불시착한 주인공! 좋은 기사감도 되지 않을까?이왕 이렇게 된 거 소모임 월드를 구경해 보기로 했다.

내가 처음으로 구경한 왕국은 요가 왕국이였다.

하진왕(3학년 전하진): 어서 와~ 요가 왕국은 처음이지?우리 왕국은 학교에서 요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요가를 하는 곳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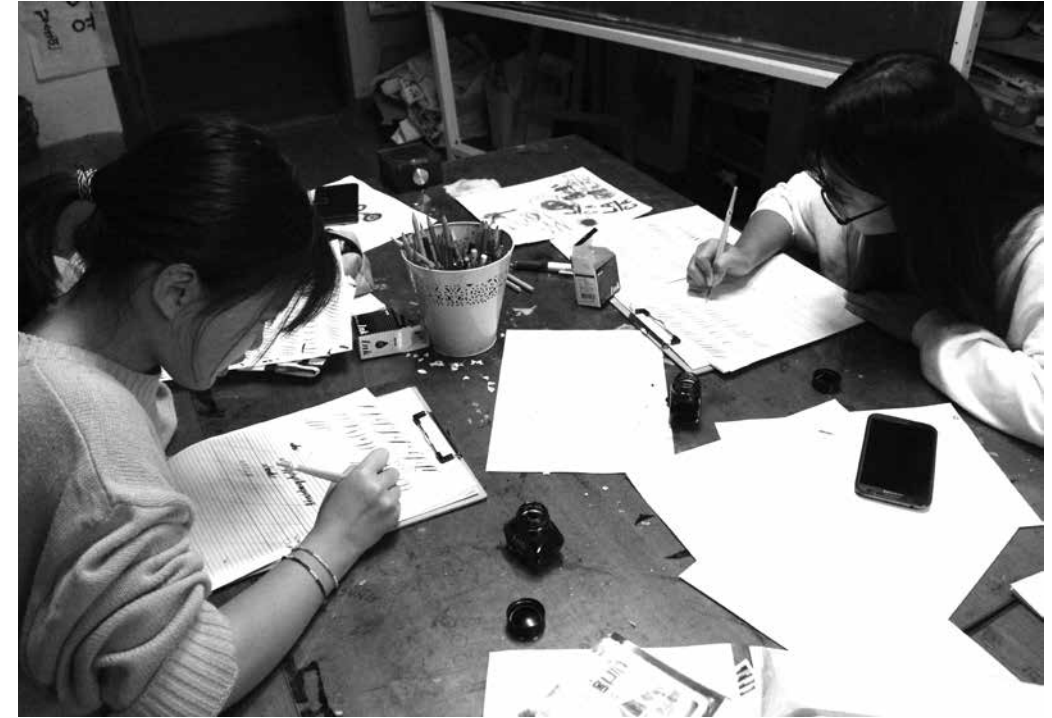
S: 아, 그렇군요! 그런데 선생님도 아니고 학생이 왕국을 만드셨네요? 요가 왕국은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하진왕: 논문을 요가에 대해서 쓰면서¹⁾ 학교에서 진행할 활동을 생각하고 있었어. '적은 인원의 학생들에게 가까이서, 좀 더 자세하게 요가를 알려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소모임 월드에 왕국을 만들기로 한 거지. 논문은 다 끝났지만 왕국 안에서 활동은 계속할 생각이야.

S: 그럼, 혹시 앞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나요?

하진왕: 백성들이 요가를 하면서 자신의 몸이 바뀌는 것

1) 14학년 전하진 양의 논문 주제 <간디인들에게 자세에 좋은 요가 알리기>_프로젝트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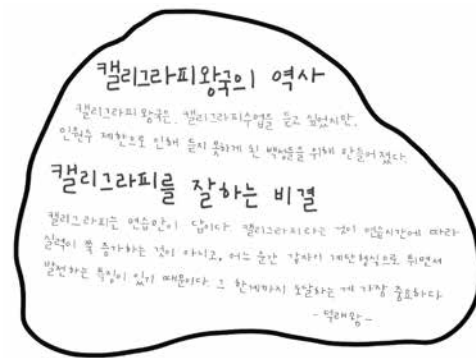


을 조금이라도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야.

하진왕에게 요가 왕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요가 왕국의 백성들도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요가 왕국 백성: 혼자 요가를 하기에는 뻔뻔하고 민망했었는데, 같이 모여서 하니 배우는 것도 많고 더 재밌어. 그런데 소모임 월드에 있는 왕국은 동아리 월드에 있는 왕국보다 힘이 약해. 그래서 모이는 시간을 우선으로 잡지 못한다는 게 좀 아쉬워.²⁾

요가 왕국 다음으로 내가 구경한 곳은 캘리그래피 왕국(이하 캘리 왕국). 성문 앞에는 왕국의 역사와 덕래왕의 비결이 적혀 있는 비석이 세워져 있었다.



2) <기사를 읽기 전에>에서 말한 것처럼 동아리는 여러 형식을 갖춰야 하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집단이며 몇 년씩 이어와서 체계가 잡혀 있다. 반면 소모임은 정해진 형식도 없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에 더 가까운 집단이기 때문에 동아리와 시간이 겹칠 경우 약속을 잡을 때 우선순위에 밀려난다.

비석을 지나치자 백성들이 캘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호모하게 바라보는 덕래왕이 보였다.

S: 백성들을 굉장히 호모하게 보고 계시네요. 백성들이 캘리를 잘 하고 있나요?

덕래왕(이덕래T): 몇몇 백성들이 캘리에 재능을 보이고 있소. 조금만 더 열심히 연습하고 미술실에서 시간을 보내면 감을 잡지 않을까 기대 중이요. 백성이여, 지금 캘리 왕국이 어떨소? 나쁘진 않소?

캘리 왕국 백성: 사실 수업보다 진도를 느리게 나갈 줄 알았는데, 수업이랑 진도가 별반 다를 게 없어 수업을 듣는 친구들과도 연습을 같이할 수 있다는 점이 참으로 좋습니다, 폐하.

덕래왕: 허허. 그렇군. 그것 참 다행이야~ 나는 이렇게 백

성들과 자주 얘기를 나눈다요. 나는 참 멋진 왕이요. 하하하.

이번 왕국은 성벽만 봐도 어떤 왕국인지 대충 감이 잡혔다. 한쪽 성벽은 모두 검은 돌과 흰 돌로 채워져 있었고, 다른 한쪽 성벽은 모두 당구공으로 채워져 있었다.

동석왕(정동석T): 바둑 왕국에 온 것을 환영하네. 그리고 당구 왕국에 온 것도 환영하네.

S: 바둑 왕국이면 바둑 왕국인 거고, 당구 왕국이면 당구 왕국인 건데, 왜 모두 이곳에 있는 거예요?

동석왕: 두 왕국 모두 나의 왕국이기 때문이지.

S: 하나도 아니고 두 개씩이나..... 대단하시네요! 이 왕국들은 어떻게 만들게 된 거예요?

동석왕: 에이, 말해 주기 귀찮아…… 나머진 알아서 알아
가게!

S: 네?? 뭐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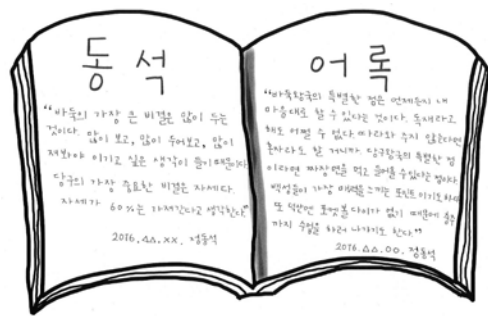
동석왕에게 상처받은 나는 그냥 다음 왕국이나 구경하
려고 했다. 그런데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를 한 노인이 내
옆에서 중얼중얼 말하고 있었다.

노인: 바둑 왕국은 동석왕이 바둑을 잘 못해서 같이 배우
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만든 거라나 뭐라나. 당구 왕국은 동석왕이 당구를 제천
간디학교에서 소개하고 싶어서 만든 거라나 뭐라나.

S: 그렇게 만들게 된 거구나~ 아! 혹시 바둑을 잘 두는, 당
구를 잘 치는 비결이 있나요?

노인: 그건 동석왕의 어록을 보면 된다나 뭐라나. 그 어록
은 저쪽에 있다나 뭐라나. 어록에 바둑 왕국과 당구 왕국
의 특별한 점도 적혀 있다나 뭐라나.

S: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동석왕의 어록을 다 읽은 나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바둑 왕국 백성: 바둑을 두면 나의 진로에 대해 탐색하고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게 좋아. 또 일상생활에
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품격을 높일 수 있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활동 시간이 밤이라 졸리다는 거야.

당구 왕국 백성: 당구는 학교에 없어서 못 치는데 일주일
에 한 번씩 학교 밖으로 나가서 당구를 치며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게 좋아. 아쉬운 점이려면 적은 인원이모
이는 소모임 월드 왕국치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약속 잡
기가 힘들다는 거야.

그다음 왕국인 영화 왕국에는 다른 왕국들과는 다르게
왕이 있고 왕비도 있었다.

기창기창기 왕비(4학년 이창기): 오홍홍~ ♪ 어서 오나라~

루이 알렉산드라 재성왕(4학년 박재성): 영화 왕국에 온 것
을 환영하네.

S: 반겨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이곳, 영화 왕국은 뭘
하는 곳이에요?

기창기창기 왕비: 이 왕국은 영화를 보고 그 영화에 대한
느낌을 나누는 곳이란★ 이 왕국은 그냥 영화를 본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것 같아. 그렇지, 여보?

루이 알렉산드라 재성왕: 허허. 그렇지. 나는 영화를 다 같
이 보고 나서 개인적인 후기를 같이 공유한다는 게 좋다
네. 영화를 더 새롭게 느낄 수 있거든. 꺄꺄꺄. 그런데 조
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왕국 백성들끼리 아직 친분이 쌓
이지 않아 살짝 어색하다는 거야.(근심 가득한 눈빛)

기창기창기 왕비: 괜찮아요, 여보~ 앞으로 백성들이랑 만
날 시간이 많은데 점점 친해지겠죠~ 나는 졸업할 때까지
이 왕국을 꾸러 가는 게 목표라구요!

기창기창기 왕비: 어쩐 우리 자기는 이렇게 예쁜 생각만

하는지♥ 짐의 목표는 우리 왕국 안에서 활동이 더욱 활
발해지는 것이라네. 더 넓게 봤을 때는 우리 왕국을 통해
서 다른 사람들도 취미가 맞는 사람들을 찾아 소모임 월
드에 왕국을 많이 만드는 거지.

손발이 오그라들던 난 기창기창기 왕비, 루이 알렉산드
라 재성왕을 피해 영화 왕국의 백성을 찾아갔다.

영화 왕국 백성: 요즘 어떤 영화가 나오고, 어떤 영화가 재
밋는지 잘 모르는데 영화 왕국에는 그런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좋아. 근데 아쉬운 점은 사람들이 취향이
다 달라서 나랑 취향이 다른 사람이 고른 영화는 가끔씩
지루할 때가 있다는 거야.

S: 그렇겠네. 취향과 다른 영화는 조금 지루하기도 하지.
좋은 얘기 고마워~

영화 왕국 백성: 잠시만! 소모임 월드의 왕들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셨어. 자 여기.

S: 우와! 고맙다고 전해 줘. 근데 나 어떻게 돌아가…….

돌아가는 방법을 물어 보려 할 때 영화 왕국 백성은 이
미 저 멀리 뛰어가고 있었다. 나는 이제 기숙사로 돌아갈
방법을 생각해야 했다. 들어올 땐 초대장을 받고 들어왔
는데, 나갈 땐 어떻게 나가지? 심각한 고민을 하던 중이득
한 곳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일어나!! 늦었어~ 빨리 일어나!!”

어? 눈을 떠 보니, 난 내 침대 위였다.

S: 소모임 월드는?

친구: 소모임 월드라니? 무슨 똥판지 같은 소리야~ 우리

학교에 소모임은 많아도 소모임 월드라는 건 처음 들어
본다. 요즘에 요가 소모임, 캘리그라피 소모임, 바둑 소모
임과 당구 소모임, 영화 소모임 등등 여러 소모임들이 새
로 생겼단데…… 너 혹시 그 얘기 듣고 꿈꾼 거 아니야?

번외. 왕국에서 준 선물들

이 모든 게 꿈이었다나…… 믿기지 않는다. 망연자실해
있을 때 침대 위에 포장되어 있는 선물이 눈에 들어왔다.
아니, 저건?! 소모임 월드에서 받은 거잖아? 역시 꿈이 아
니었어!

하진왕은 자세에 좋은 요가 한 동작을 알려 주셨네? 앞
으로 허리가 안 좋을 땐 이 동작을 해 봐야겠다!

덕래왕은 직접 캘리그라피로 써 주신 글귀를!! 영광스럽
다…… 내 기사의 제목으로 써야겠군.

동석왕은 바둑 문제를 주셨군. 끄응……, 문제 푸는 건
싫은데…… 이걸 읽고 계신 많은 분들이 대신 풀어 주시
겠지? 또 당구 자세도 알려 주셨네? 앞으로 멋있는 언니들
의 자세를 참고해야자~

기창기창기 왕비, 루이 알렉산드라 재성왕은 영화 추천
을!! 재밌겠다~ 다음에 꼭 봐야겠어.

친절히 왕국을 소개해 주신 것만으로도 과분한데, 이
렇게 값진 선물까지 보내 주시다니! 왕들께 정말 정말 감
사하다. 이렇게 멋진 소모임 월드를 나만 구경한 게 아쉽
지만, 이 기사를 읽으면서 조금이라도 그 현장의 재밌고
상큼 발랄한 기운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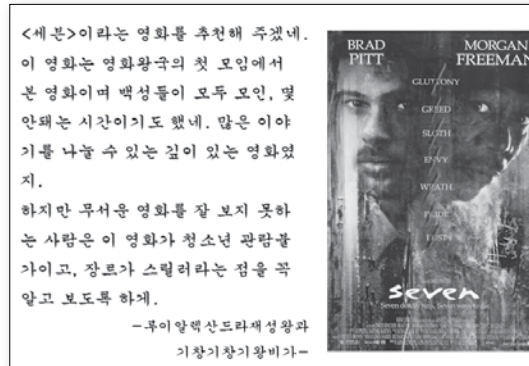
앞으로 소모임 월드도 더 발전하고 학교에 있는 소모
임들도 더 활발해지길…….

소모임 월드 파이팅! 학교 소모임들도 모두 파이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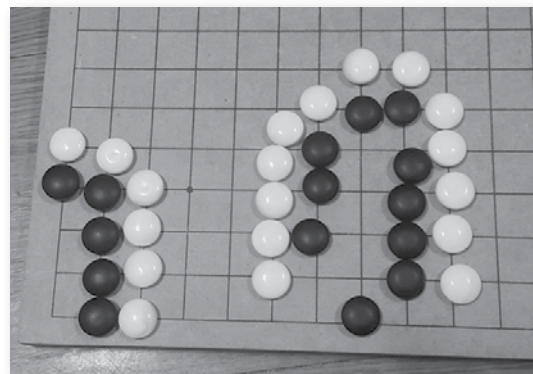
하진왕이 알려준 요가 동작



기창기창기 왕비, 재성왕이 추천한 영화



동석왕의 바둑 문제



문제 - 흑성할 (흑돌 차례일 때 어디에 두어야 흑돌이 살아남을까?)

멋진 언니들의 당구 자세



2부 / 간디학교 소식

사설 1 우리는 바뀔 수 있을까? 글 / 김민석

사설 2 규칙 백지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 글 / 박우제

못다 한 이야기 그 사람들의 장소 글 / 김담

덕래왕의 캘리그래피는 기사 제목으로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바꿀 수 있을까?

김민석 기자(6학년)

2016년 2학기 제천 간디학교는 외부 대안교육 전문가들에게 컨설팅을 부탁해 진행했습니다. 컨설팅을 한 이유는 학교가 좀 더 시대와 구성원에 맞게 변화해야 된다는 필요를 느꼈고, 우리 안에서 의논하기 전에 외부 시선으로 제천 간디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8월 말부터 10월까지 간담회, 전수 조사 등 활발한 활동들이 진행됐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활동 중 어떠한 제한, 틀 없이 학생들 개개인이 정말로 원하고 꿈꾸는 학교의 모습을 그리거나 적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취재원은 이 활동으로 나온 학생들의 의견을 흥미롭게 봤습니다.

이 활동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이 참여했고, 총 230개의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이 의견들을 주제별로 묶으면 51개의 주제가 나옵니다. 학생들이 제일 많이 냈던 의견은 '교육 과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30개의 의

견들 중 59개가 교육 과정에 관한 의견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설(33개)', '개인 보장(17개)', '관계(14개)', '학교 철학(13개)' 등 다양한 의견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많이 나온 의견들 중 몇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학교는 문제투성이

'교육 과정'에 관한 59개의 주된 의견은 현 교육 과정에 대한 불만, 개선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논문을 없애자', '등산을 가지 말자', '필수 수업 왜 하는지 모르겠고, 필요

성을 못 느낀다' 등의 극단적인 의견과 함께 수업을 강제로 듣는 것이 아닌, 자신이 필요한 수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필수 수업을 줄이자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개인 보장에서는 현재 공동체안에선 개인의 자유, 시간, 사생활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존중되어야 하고, 개인 공간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학생들은 학교가 지향하고 있는 '공동체'라는 철학으로 인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공동체만 추구하다 보니 나 자신인 개인이 없어졌다', '공동체를 이해 못한 학생들이 많다. 공동체와 개인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해와 합의가 필요하다'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관계'에서는 개인 보장과는 대조적이게 서로에게 더 관심을 갖고 친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을 가족이라고 하지만, 인원이 많아서 주변 사람에 대해 너무 모르고 정글 같은 분위기다', '학생과 교사, 선후배 모두가 끈끈하고 친근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철학'에서 나온 의견들은 교육 과정에서 나왔던 극단적인 의견의 성격과 비슷했습니다. '학교 철학을 강요하지 마라', '가치를 지향하고 싶다면 공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요', '가치를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논의와 설득을 통해 함께 가치를 정해서 지키자'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고 강요한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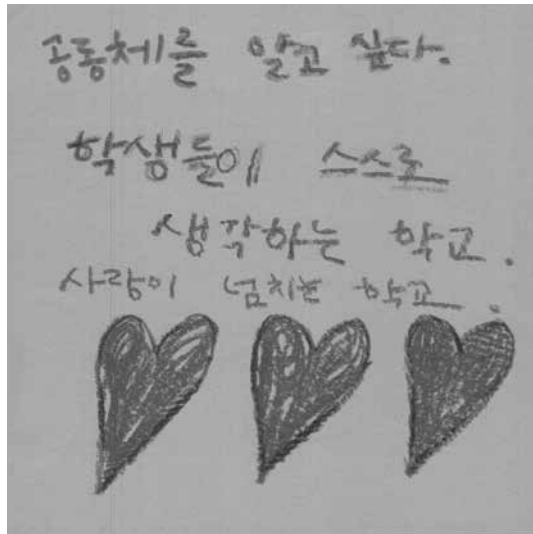
학생들은 현재 학교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과 많은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전체 의견이라고 보기엔 애매한 점이 있고, 각 학년의 생각을 알 수 없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한 자료가 필요해 설문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중등부 44명, 고등부 27명에게(인문학 일

정상(학년 제외) '필수 교육 과정', '개인 보장', '학교 철학'에 관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중등, 고등의 극심한 의견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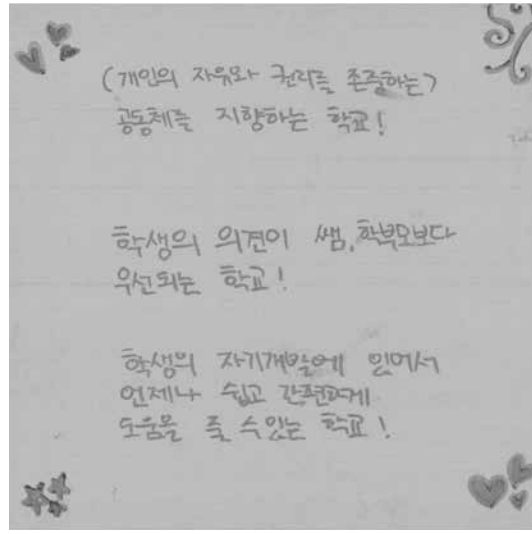
설문 결과, 각 항목에 대한 중등과 고등의 의견 차이가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필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서 중등은 22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필요하지 않다', '모르겠다'엔 각각 9명만이 답했습니다. 중등의 전반적인 의견은 필수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는 쪽이었습니다. 반면, 고등은 '필요하다'에 12명, '필요하지 않다'에 10명으로 양쪽의 의견이 팽팽히 갈렸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 필수 교육 과정을 다 경험해보지 못한 중등과 거의 모든 필수 교육 과정을 경험한 고등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필수 교육 과정이 어떻게 개선되길 원하시나요?'라는 주관식 질문에는 컨설팅 전수조사 결과인 '필수 수업을 줄이고 선택의 기회를 늘이자'라는 의견이 중, 고등 양쪽에서 나왔습니다. 다수의 학생들이 많은 필수 수업의 수와 선택 없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것에 불만과 개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개인 보장에 관한 내용은 중, 고등 둘 다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개인의 자유, 시간, 사생활 등이 잘 지켜지고 있나요?'라는 항목에서는 중등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에 각각 11명, 5명, 고등은 9명, 7명이 응답해 왔고, '보통이다'엔 중등 16명, 고등 10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에는 중등이 3명, 7명, 고등은 0명, 1명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컨설팅 전수 조사 결과와 더불어 추가로 설문 조사에서 학생들은 기숙사 생활 같은 공동 생활이 개인 보장을 침해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철학'에선 중, 고등의 의견 차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고등은 '학교 철학을 강요받는다'는 생각이 드나요? 라는 질문에 '네' 18명, '아니오' 2명, '모르겠다' 4명으로 '강요받는다'에 치우치고 있었습니다. 반면, 중등은 '네' 13명, '아니오' 13명, '모르겠다' 14명으로 답들이 다양하게 분산됐습니다. 중등은 '학교 철학'에 대해 '잘 모르겠다', '강요당한다고 못 느끼겠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등의 얘기를 해줬고, 고등은 '너무 간단만의 틀을 만든다', '모든 걸 학교철학에 맞춘다' '학교 철학에 매여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반대로, '강요가 아닌 강조하는 것인데 그만큼의 배움이 크지 않을 뿐이다', '자기 생각만 얘기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듣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컨설팅 전수 조사는 전교생이 참여해 다양하고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다양한 의견들 중에서도 모아지고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토대로 다시 조사해 본 결과, 컨설팅 전수 조사에서 모아지고 중복됐던 내용들은 다수의 고등부가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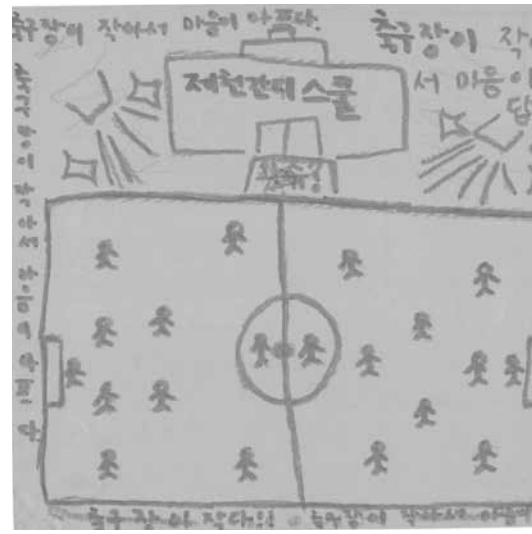


하고 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중등부는 한 쪽으로 치우침 없이 다양한 의견들이었고, 고등부는 지나치게 한 쪽으로 쏠린 의견들이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지긋지긋한 학교

4, 5년 동안 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사람들과 아무런 변화 없이 거기서 거기인 수업, 언제나 답 없는 회의, 비슷한 일상을 겪다 보면 자연스럽게 학교가 지긋지긋하고 답답할 겁니다. 그렇기에 지금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문제로 느껴지고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어찌면 지금의 학교는 고등부가 나태해지고 권태에 빠지기 쉬운 구조일지도 모릅니다.

2012년도부터 중, 고등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현재까지 교육 과정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또 2002년 제천으로 이주한 뒤 생긴 학교 철학을 배우는 여러 가지 활동들도(가족 회의, 주여 등) 어떠한 변화 없이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내가 밝게 될 다음 코스들,



학교에서 해야 하는 것들이 당연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 무병을 갔다 오면 인턴십 준비를 하고 월요일엔 주여, 금요일엔 가족회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것들을 오랫동안 겪은 학생은 답답하고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등부 학생들이 현재의 교육 과정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문화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학교를 이루고 있는 것들이 적어도 지금 고등부에게는 맞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뀔 수 있을까?

아무리 좋은 교육 과정이고 의미 있는 학교 철학을 배울 수 있어도 구성원들에게 맞지 않고 공감과 이해를 얻지 못하면 그것은 그저 형식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예전부터 그랬으니 당연하단 듯이 이어져 온다면 거기에 담긴 의미, 가치는 사라지고 그저 억압하고 짜증나게 하는 것들이 됩니다. 그렇기에 정체되지 않고 항상 변화의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지금에 대해서 끝없이 고민

하고 많은 사람들과 얘기하고 풀어 가야 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도 답답함에 짜증나고 나태함에 찌들어 무기력하게 사는 것보단 이편이 훨씬 맘 편하고 즐거울 겁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도 결국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있어야 가능하겠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컨설팅을 한다고 한순간에 학교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컨설팅으로 우린 엄청난 숙제와 회의거리를 받게죠. 하지만 그것들이 결국 이 지긋지긋한 학교에 변화를 가져다 줄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규칙 백지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

박우제 기자(2학년)

2016년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시작한다. 규칙 백지화. 우리는 뼈곡히 적혀 있었던 규칙을 깨끗한 백지 상태로 만들었다. 마치 철창 안의 사나운 사자를 풀어 준 것처럼 공동체가 스스로 규제한 것들을 풀었다. 하지만 이 사자는 우리를 거꾸로 덮칠 수도 있고, 혹은 야생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서 어울려 살아갈 수도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지금부터 우리는 백지화 속으로 들어가 본다.

1. 우리는 왜 백지화를 시작했을까?

우리는 규칙에 대한 불만을 늘 가지고 있었다. '휴대폰 쓰고 싶다', '라면 먹고 싶다', '덕산나가고 싶다' 등등. 이런 불만들은 '왜 이 규칙이 있어야 되지?', '규칙 때문에 너무 답답해. 안 지키면 어떻게 되지?'라는 질문을 만들었고, 이 규칙들이 우리가 만든 규칙이 아니라 원래 학교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2016년도 학생회는 '우리의 규칙,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규칙을 다시 만들자'라는 취지로 규칙 백지화를 시작했다.

• 2016년도 학생회 인터뷰 :

전선(보건복지부 장관), 이재형(중등 학생회장)

Q. 규칙 백지화는 어떤 사업입니까?

선: 백지화는 옛날선배들이 정해놓은 규칙에 대해 우리가 불만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규칙을 없애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그 불만들을 해결해 보는 건 어떨까?' 해서 백지화 의견을 냈어.

재형: 규칙은 우리학교의 철학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데, 우리가 만든 규칙이 아니고 옛날에 정해져서 내려온



규칙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은 규칙으로 철학을 강요 한다는 느낌 들었던 것 같고 또 우리가 주체적으로 만들자고 해서 시작한 거야.

Q. 백지화를 의논할 때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예상했나요?

선: 그냥 몇 달 동안은 엄청 풀리지겠지?

재형: 백지화를 하면서 처음엔 풀이지더라도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데... 사실 우리도 백지화 후에 제대로 될 거란 생각은 안했어.

Q. 백지화의 문제점이 있을까요?

재형: 백지화를 시작한 지금 문제점을 찾기보다는 나중에 규칙을 제정할 때 문제라고 생각되는 게 있는데 지금 생

활이 너무 편해 그 문제점을 말하지 않으면 그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

Q. 좋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선: 모든 규칙이 풀렸잖아. 이것을 경험해 보는 것이 좋은 점이지.

Q. 백지화가 진행 중인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면 좋겠어요?

선: 지금이 생활이 좋다고 불편한 점을 안 고치고 방치해서 생활을 반복하지 말고 주체적으로 잘 풀어 나갔으면 좋겠어.



[학생회가 제안한 백지화의 목적 3가지]

- ① 학생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규칙들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기 위해.
- ② 백지 상태에서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고 우리의 생활에 맞는 규칙을 세우면서 학교의 주체가 되기 위해.
- ③ 매번 오래 걸리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질질 끄는 회의가 아니라 생활하면서 바로바로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효율적인 회의를 만들기 위해.

2. 백지화가 시작된 후 사람들에게 반응을 살펴보다

백지화는 양날의 검이다. 편안함과 불편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양날의 검, 백지화로 인해 편안함과 불편함을 함께 느끼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자.

• 편리하다. 백지화는 삶을 진화시켜 주는 존재

5학년 J군: 백지화는 편리한 생활이야. 먹고 싶은 거 아무 때나 먹을 수 있고, 나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나갈 수 있고 연락도 쉽고 궁금한 것을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어.

3학년 S군: 편리한 생활을 하는 것 같아. 예전엔 못했는데 학교에서 기숙사에 전화해서 뭐 좀 가지고 내려와 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고.

2학년 K군: 휴대폰으로 소통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전산실이 짝 차도 SNS를 할 수 있지. 그리고 전화하러 그 추운 밤에 전화실까지 가지 않아도 되고, 그게 너무 좋아.

• 그러나…… 과연 즐기만 할까? 편안한 소파에 하루 종일 누워 있으면 몸이 빠근하듯이.

2학년 L양: 매점에 자꾸 가서 돈이 많이 들어. 또 밤에 계속 라면을 먹으니까 살찌고 늦게 자고 다음날 컨디션 안 좋고, 이렇게 끊지 못하는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전자기기 중독이 심해. 애들이 다 폰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좀비들 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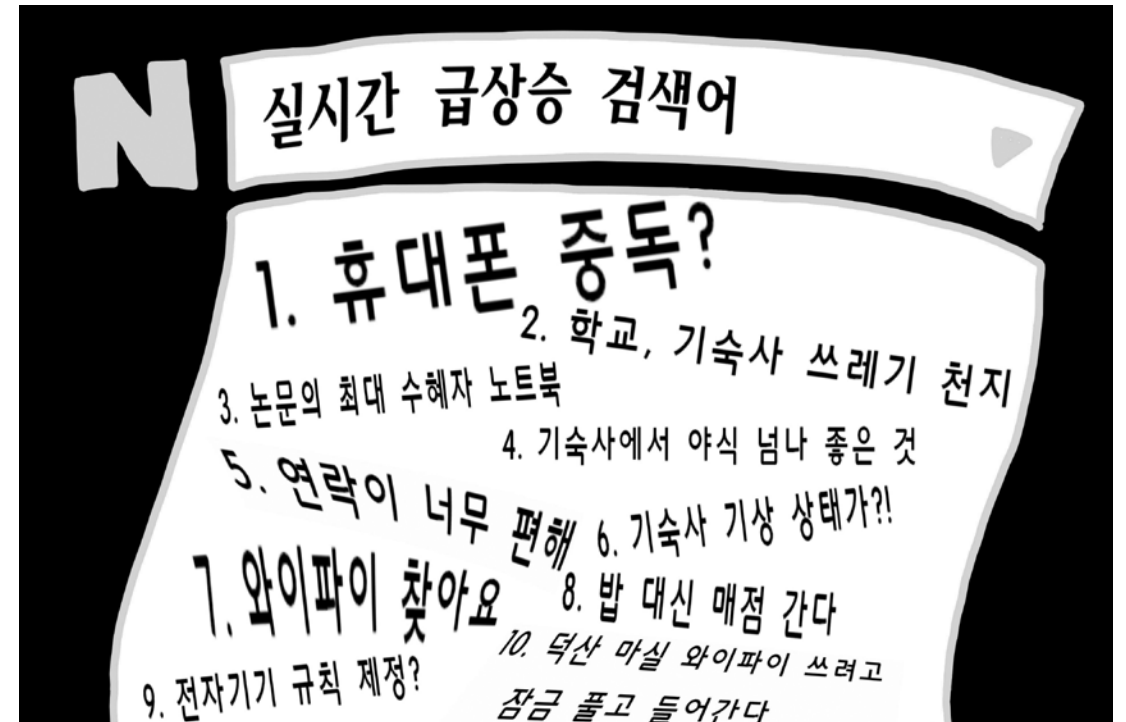
3학년 P군: 일단 쓰레기가 너무 많아. 일단 방에 들어가면 라면 쓰레기가 쓰레기통을 점령하고 있어서 좀 짜증나, 또 쓰레기가 방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난 다락방에서 자서 별로 상관없지만 1학년들은 1층에서 자. 근데 짹짹 해서 자기 전에 한 번 쓸고 잔대, 아니면 깨끗한 방으로 외방¹⁾하든가.

1학년 H군: 휴대폰 때문에 방에 콘센트 꽂을 때가 남아있질 않아. 돈도 많이 나가고 잠도 늦게 자. 쓰레기가 많아져서 방이 더러워지고, 다들 폰만 보고 있어서 친구들과 소통이 원활하지가 않아.

• 우리의 생활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기숙사 사감 정동석 선생님을 만나 보았다.

Q. 백지화를 한다고 들었을 때 어땠나요?

이 아이들이 이런 것도 실천으로 옮기고 있구나. 변화를



시작하는 모습이 반가웠어.

Q. 백지화를 시작할 때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예상했나요?
지금 상황과 굉장히 비슷한 예상을 했어. 일단 쓰레기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각자의 개인적인 성향이 강해질 것이고, 게임에 흠뻑 빠져 있고, 아침마다 기상이 늦어질 것 이다라고 생각했지. 그리고 보니 나쁜 점들은 왜 그렇게 잘 맞아떨어지는 건지 모르겠어.

Q. 백지화의 문제점이 있을까요?

조금 더 두고 봐야 하지 않나 싶어. 너희들이 어떻게 이 걸 실천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판단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 나가는 모습을 봐야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을까?

Q. 좋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너희가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아서, 그거 하나는 좋아.

Q. 백지화가 진행 중인 지금 어떻게 흘러가면 좋을까요?

난 너희의 의지에 달렸다고 생각해. 의지가 지금하고 있는 행동을 이겨 내지 못하면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도 계속할 거야. 그건 의지가 부족해서 행동하지 못했다는 거지. 그건 문제겠지. 난 그 상황을 대비해 의지를 끌어 올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제천 간디학교 대나무숲¹⁾

3. 앞으로를 바라보다

백지화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여러 가지를 백지화의 편리한 점, 불편한 점을 느낄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새로운 변화 백지화를 피해 갈 수는 없다. 당분간 이 생활을 다시 반복할 간디인의 솔직한 바람을 들어 보았다.

3학년 S군: 나는 백지화를 반대했던 사람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백지화의 혜택을 제일 많이 누리고 있어. 그렇지만 주체가 되어 가겠다는 방향성을 많이 잃었다고 생각

해. 백지화가 된 학교에서 생활하고 소통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함께 채우면 좋겠어.

2학년 D양: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야 할 규칙들을 학교 철학과 맞추어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모두가 잘 살아가면 좋겠어.

5학년 O군: 학생회가 책임감을 느끼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줬으면 좋겠어.

2학년 J양: 스스로 자제를 하면 좋겠어. 모두 바뀌어야 할 점을 생각해 보고 조금이나마 바꾸려고 노력했을 뻔하면 해. 이건 희망 사항이고, 나는 전자기기에 관한 사소한 규칙들을 만들어서 다 같이 배려하는 게 가장 큰 바람이야.

3학년 K군: 지금처럼 가도 되는데 쓰레기만 잘 치워 주면 좋겠어.

[학생회 백지화 계획서 기대 효과]

'한 학기 만에 놀랍도록 새로워지고 모든 게 변화하고, 학생들이 모두 주체적으로 변하고 의견을 활발하게 내는 이상적이고 화려한 변화는 애초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다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 지치는 회의와 생활을 지속하는 것보다는 조금 혼란스럽더라도 변화를 시작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간디인으로서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아닐까 싶다. 변화의 시작이 학생 개인에게도, 앞으로의 학생회에도, 학교에도 니코니코니²⁾한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

1) 제천 간디학교 전용 대나무숲 페이스북 페이지이다. 2016년도 집행부에서 백지화 진행과 동시에 불만이나 이의 제기를 익명으로 할 수 있도록 소통의 창구를 마련했다.

2) '니코니코니'는 백지화 사업의 이름

그 사람들의 장소

김담 사진 기자(2학년)

규칙 백지화가 된 지도 석 달이 가까이 되어가는 지금! 전자기기에 대해서 많은 얘
기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많은 사용량에 학생회에서 '넌 얼마나 쓰니'라
는 앱을 추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전자기기를 가장 많이 쓰고 있
는지, 또 누가 가장 적게 쓰고 있는지 설문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2학년 권태윤
과 박우제, 그 둘의 인터뷰를 들으러 가시죠! 또 전자기기를 가장 많이 쓸 것 같은
사람과 안 쓸 것 같은 사람이 알려 준 두 장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자기기를 가장 안 쓸 것 같은 사람, 권태윤

Q. 전자기기를 가장 안 쓸 것 같은 사람에 선정 되셨는데,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A. 좋은 것 같아요.

Q. 전자기기 허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A. 사람들이 자제만 잘 한다면 좋은 것 같습니다.

Q. 전자기기를 쓰지 않을 때 디서 무엇을 하고 노시나요?

A. 저는 주로 교실에서 기타를 칩니다. 기타가 교실에 있
기도 하고 같은 반 친구들이 있어서 편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들으면 부끄러워서 교실에서 많이 치고 있어요.

전자기기를 가장 많이 쓸 것 같은 사람, 박우제

Q. 전자기기를 가장 많이 쓸 것 같은 사람에 선정 되셨는데,
느낌이 어떠신가요?

A. 기분이 그리 좋지는 않네요.

Q. 전자기기 허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A. 안 좋은 것 같아요 교실에서 애들이 다 쓰고 있으니까
서로 분리된 느낌이 들어요.

Q. 전자기기를 쓰지 않을 때 어디서 무엇을 하시나요?

A. 양호실에서 잠을 잡니다. 따뜻하니까 잠이 잘 와서 많
이가요.





교실 아마도 학교 생활을 하면서 가장 오래 있는 공간이 아닌가 싶다. 아침 독서, 아침 열기, 필수 수업 등등 많은 수업을 교실에서 한다. 그만큼 편안하고 자신에게 맞춰져 있을 것 같다. 권태윤이 말했듯이 기타를 쳐도 되고 폰을 만져도 되고, 교실에서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다.



양호실 이번에 공사를 하고 나서 많이 깔끔해졌다. 하지만 아직 페인트 냄새가 조금 나서 그런 냄새에 약한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머리가 아프거나 생각을 정리하고 싶을 때 누워 있으면 편안한 느낌이 든다. ♡



3부 일상다반사

화제의 인물 그의 정치는 끝나지 않았다 글 / 이에슬

특집 1 풍악을 울려라~ 글 / 권윤서

특집 2 청소년이 주인이다! 글 / 이한결

시국 선언문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6학년 일동



그의 정치는 끝나지 않았다

이예슬 기자(5학년)



선거철이 다가왔다. 11월에 뜬금없이 무슨 선거철인가 싶지만, 제천 간디에선 익숙한 일이다. 매년 11월 중순이면 다음 해 학생회를 이끌어갈 학생회장을 뽑기 때문이다. 선거철 교내 분위기와 더불어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 나오는 각종 정치 사건과 나라의 분위기까지 반영한 이번 화제의 인물은 '정치를 잘 할 것 같은 역대 중등 학생회장'.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현재 재학 중인 전 대 중등 학생회장들과 현 중등 학생회장까지 총 네 명의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결과, 2014년 중등 학생회장직을 재임한 5학년 최형서 군이 당선(?)되었다.

생각이 깊고 진중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보 았지만, 짧은 시간이나마 직접 만나 본 그는 떠도는 소문보다 훨씬 더 '멋있는' 사람이었다. 인터뷰가 끝나 가는 게 아쉬울 정도로 그의 이야기는 귀를 기울이게 하는 매력이 있다.

눈 크게 뜨고 잘 보시라. 아마 인터뷰를 다 읽을 때쯤이면 당신도 그 매력에 푹 빠져 있을 것이다.



Q. 열한 번째 화제의 인물이 되었다. 뽑힌 소감은 어떤가?

전혀 예상 못했다. 지금 중등부 애들은 대부분 내가 중등 학생회장(이하 중등회장)일 때 없었으니까. 그래서 현 중등회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뭐, 기분이 나쁘진 않다. 신기하기도 하고.

Q. 회장을 했던 게 오래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뽑힌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평소에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걸 보고 뽑은 것 같다.

그리고 정치를 잘하게 생긴 것도 한 몫 하지 않았을까. 청렴결백하게 생기지 않았나, 하하.

Q. 2014년 한 해 동안 중등회장에 재임했는데, 시간이 많이 흐르긴 했지만 기억을 잘 더듬어 보는 걸로 하자. 먼저 가장 즐거웠고 보람찼던 때가 궁금하다.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가족회의 진행해 본 게 가장 큰 경험이었다던 것 같다.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때 학교에 관심도 많이 가지게 되고, 학교에서 회의가 어떤 의미 인지감을 잡았다.



Q. 그렇다면 가장 힘들었던 점은?

음, 2학기가 되면서 논문과 학생회장을 병행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 갈피를 잘 못 잡고 헤맸다. 너무 힘들어서 울기도 했고.

Q.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나?

근데 정말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웃음) 굳이 떠올려 보자면…… 2학기 때 고등 학생회장의 부재로 혼자 일하게 되어서 집행부 선배들이 많이 챙겨 줬었던 기억이 난다. 그해 내 생일에 집행부 회의를 했는데, 다 같이 축하한다고 노래도 불러 주고, 잘하고 있다고 말해 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

Q. 본인의 정치에 점수를 매긴다면? 10점이 만점이다.

음……6점?(예상보다 점수가 낮다.) 내가 정치를 잘 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할 수 있는 한에서 열심히 한 거지. 생각이 무르익지 않아서 그런지 학생들 의견에 공감하는 것이 어려웠고, 안건을 하나 내도 반대가 많아서 순탄치 못했다.

Q. 이번 질문은 조금 난처할 수도 있지만, 생각했던 대로 솔직하게 답해 주면 좋겠다. 현 회장단의 정치에 대해 짧게 평가한다면?

여기서 하라고? (웃음) 음, 회장들의 성격일지도 모르겠지만, 너무 급진적인 면이 있다. 백지화가 그렇다. 방학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논의를 시작해서 1주일 만에 의결까지 마쳤는데, 학생들이 정확히 필요성을 인지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학생들과 같이 가지 못한 것 같다.



Q. 미래의 회장단에게 조언해주고 싶은 것이 있나?

일단 학교에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생들과 공감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라는 것. 학생들의 생각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제일 어렵긴 하지만.

Q. 이제 최근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요즘 잘 지내고 있나?

사실 학교 생활에 정체가 온 듯하다. 예전엔 자치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 개인 시간이 없어서 내 일에 집중을 못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학기엔 하는 일이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걸 보면서 심적으로 힘들었다.

Q. 혹시 이 자리에서 학교에 대해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

일단 백지화를 하면서 학교의 철학이나 가치가 규칙으

로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하지만 현재 학교에서 간디의 철학이나 가치에 부합하는, 다른 방향의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 개정도 좋지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가치와 철학을 느낄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

그리고 하나는 전자기기 문제인데, 나는 원래 규칙 대 토론회 할 때도 전자기기 반대 패널로 들어갈 만큼 우려를 많이 했다. 새로운 시도이고 경험해 봐도 좋을 거라 생각해 백지화에 동의를 했지만, 백지화 후의 모습이 그때의 걱정과 너무 비슷하다. 서로 얼굴 보지 않고 전자기기만 쳐다보고 있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 주는 방향의 정책이 많아지다 보니 학교가 더 차가워지고 대화도 점점 줄어드는 느낌이다. 마주 보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Q. 정이 굉장히 많은 편인 것 같다.

학교를 나갈 때가 되니까 이런 생각이 자주 든다. 지금 1학년 여학생들이 주제 프로젝트 하면서 ‘형서 오빠랑 말 해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다. 내가 중등일 때 우리 반 여자애들이 하던 말인데, 그런 얘기가 나한테 넘어 오니까 많이 아쉽더라.

Q. 다음은 ‘정치를 잘 할 것 같은 사람’인 만큼 한국에서의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다. 먼저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누가 보기에든 정상적인 사람,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기 힘들었고, 자신의 주체적인 정치 색깔이나 신념이 아니라 이상하게 나라 운영을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드디어 그 이유를 알게 되어 좀 시원하다. 사람들이 많이 일어서는 걸 보니 희망차기도 하고, 하지만 이게 얼마나 같지는 모르겠다. 사람들이 관심을 꾸준히 가지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Q. 혹시 정치인이 된다면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나? 사업이라든지, 공약이라든지.

노동 처우가 전체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기본 수당이나 최저임금 문제 등을 다루고 싶다. 나는 노동이 모든 삶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삶을 좀 더 윤곽하게 할 수 있도록 노동 인권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Q. 혹시 진짜로 정계에 진출할 생각은 없나?

지난 6월에 알바노조라는 시민 단체에서 움직이는 학교를 했다. 거기서 일을 하며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아빠한테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런데 그 후에 <내부자들>이라는 영화를 봤다. 거기 보면 막 팔목이 잘란다.

물론 영화는 단면적이고 극단적이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누군가 잡혀 들어가고, 매장당하는 걸 보며 노동운동이든 정치든 너무 무서워졌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일개 시민에 만족하기로 했다, 하하.

Q. 만약 정치를 한다면 어떤 직위에 도전할 생각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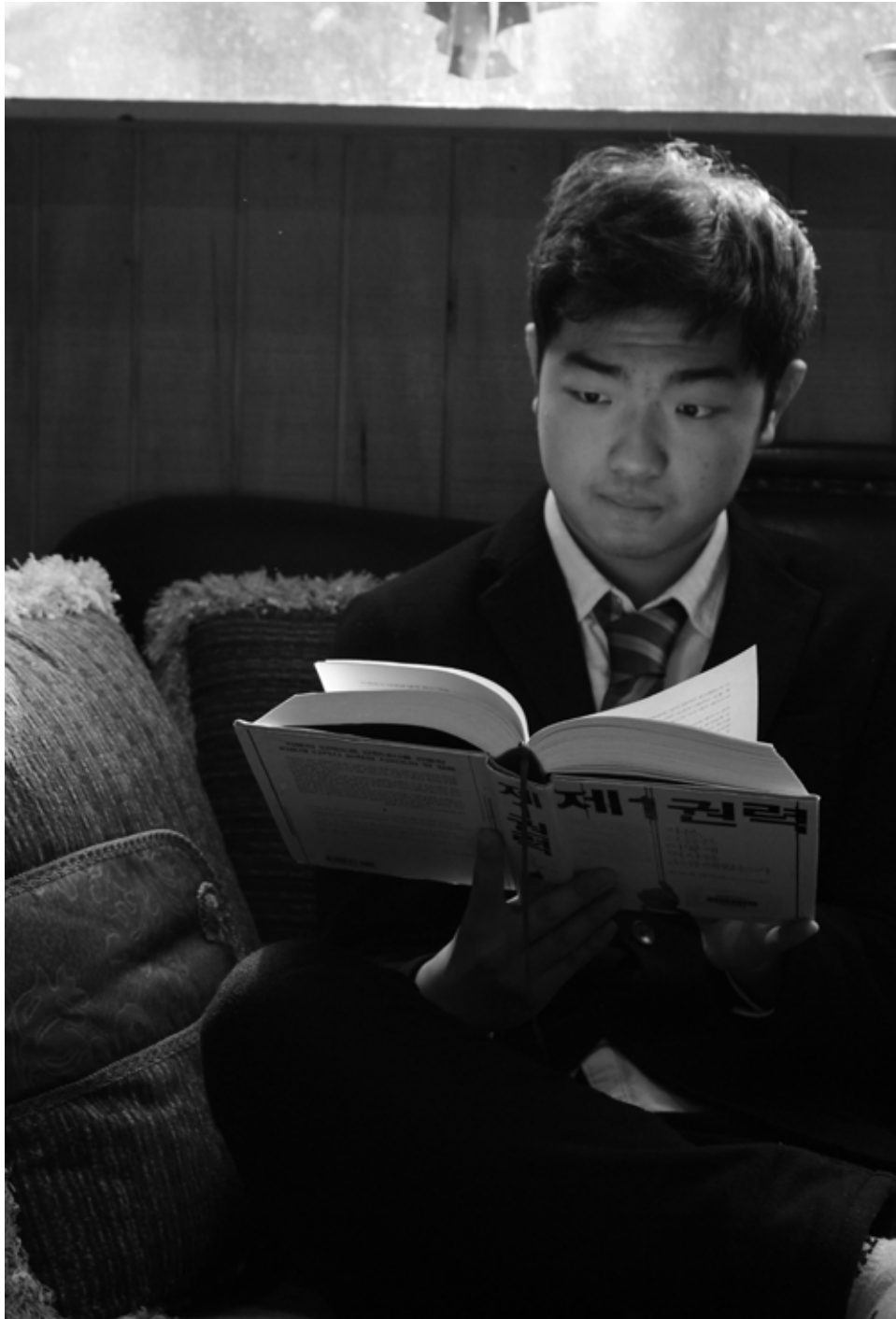
국회의원이 가장 탐난다. 지역구를 가꾸고 지역에 맞는 정책을 펼치는 것도 좋고, 국회에서 정당끼리 의견을 발의하고 토론하는 게 재밌어 보인다. 법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마지막으로, 세간의 정치인들에게 일침 한 마디.

솔직해졌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새우뚱에서 서민을 생각한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런 정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음. 차라리 솔직하게 말했으면 좋겠다.

짧은 시간 진행된 인터뷰였지만, 그가 평소 생각하던 것들을 제법 깊이 있게 들어 볼 수 있었다. 지면의 부족으로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아까울 정도. 본인은 ‘정치를 할 만한 그릇이 아닌 것 같다’고 했지만, 아마도 그가 어디서든 소신을 가지고 멋있게 헤낼 수 있는 사람이란 걸 학생들이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화제의 인물로 뽑힌 것이 아닐까? 어떤 길이 되든, 앞으로 더욱 빛날 그의 행보를 응원한다. 인터뷰 전문은 일상다반사 페이스북(<http://fb.me/ilsangandhi>)에 공개될 예정이다. 🐼





풍악을 울려라~

권윤서 기자(1학년)

학교 운동장에서는 제천 민속예술제를 준비하는 솔피바람(풍물 동아리)의 정겨운 풍물 소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솔피바람만이 아니라 경당(무예 동아리)도 함께 참여해 더욱더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솔피바람과 경당은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아 매일 맹연습 중입니다. 상상만 해도 들썩들썩 흥이 나는데, 실제로 보면 얼마나 신날까요? 보러 가시죠!



솔피바람과 경당이 정말 열심히 연습 중입니다. 추운 날 씨임에도 불구하고 반팔을 입고 열심히 연습 중인데, 연습을 차마 방해할 수 없어 인터뷰는 못 하고 솔피바람 멤버들의 일기를 슬쩍 훑쳐보았습니다.

재밌게 연습을 한 것 같네요. 환하게 웃으면서 땀을 흘리는 솔피바람이 멋있게 보입니다. 한 편만으로는 솔피바람의 연습을 다 알지 못하겠지요? 한 편을 더 훑쳐보까요?

두 개의 일기 내용이 정말 다른데요. 역시 연습을 재밌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재미없게 느끼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도 연습할 때 보면 다들 웃으면서 하고 있답니다. 솔피바람 멤버들의 일기를 봤는데요. 경당 멤버들이 느낀 연습이 어땠을까요? 이번에는 경당 멤버의 일기를 봅시다!

무거운 검과 악기를 들고 뛰는 걸 상상만 해도 힘드네요. 솔피바람과 경당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저도 벌써부터 대회 날이 기대가 되는데요. 그 누구보다도 솔피바람과 경당이 더욱 기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확확 지나고 어느새 모두가 기대하고 기대했던 대회 날입니다!! 연습한 만큼 다들 긴장하고, 긴장한 만큼 대회를 기다렸을 텐데요. 대회가 시작되고 다들 떨리는 것 같습니다. 솔피바람은 손으로 장단 연습을 하고, 경당은 무대 뒤에서 끊임없이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다들 긴장되지만 묘하게 들떠 보입니다. 세 팀이 공연을 끝내고, 솔피바람의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무대에 나가기 전 다 같이 모여 파이팅을 외칩니다. 무대에선 장단 중간 중간 추임새를 넣으며 신나게 판을 만들었는데, 보는 사람들도 절로 신나는 무대였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솔피바람

날짜	0월 00일	제목	솔피바람연습	날씨	☀️ ☁️ 🌧️ ❄️
오늘은 솔피바람연습을 했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고요한 시각 우리는 아침 일찍 잡려버린 연습을 위해 그 고요함을 깨고 일어나는 졸음도 깨버렸다. 모두가 약속한 시간은 지났는데 한 돌 늦어버리는 바람에 30분이 넘어서야 연습을 시작했다. 판국은 선반이어서 연습을 한번만 해도 땀이 주옥처럼 떨어졌다. 항상 하던 거였지만 조금만 판 생각을 해도 들려버린다. 그래도 하다보면 시작할 땐 하키 싫었던 연습이 어느새 웃으면서 끝났다!					

날짜	0월 00일	제목	솔피바람연습	날씨	☀️ ☁️ 🌧️ ❄️
솔피바람과 경당이 함께 연습을 했다. 무거운 검을 가지고 계속 뛰어서 너무 힘들었다. 게다가 솔피바람과 처음하는 연습이어서 맞추는데 정말 힘들었다. 짜증도 많이 났고 연습을 하면 할수록 지쳐갔다. 하지만 처음으로 완벽하게 맞추었을 때는 너무 기분이 좋았다. 엄청 힘들고 지쳤지만 민속예술제를 생각하니 힘든다는 생각 대신 기대가 되었다. 생각만 해도 두근 두근 거린다.					

날짜	0월 00일	제목	솔피바람연습	날씨	☀️ ☁️ 🌧️ ❄️
오늘은 솔피바람 섹션 날이다. 와 뒤지게 힘들다 이번 전수는 오해 이렇게 재미가 없는 건지 참 많은 날인 듯한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 북을 칠 때 자꾸 큰이 들려버리는데 내 울먹이 이상한건지 가끔 술을 이길하게 어떤 건지 술이 이상한건지 북이 무거운건지 모르지 감이 안 온다. 민속속을 쳐서만 가는 손을 날린 듯한 느낌적인 느낌 유혹 심함 전수를 하면서 이왕때 쯤이면 내가 대이 전두를 보나 보라하면서 또 오곤 했지만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파노처럼 들려왔다. 진짜 관중때가 된 것 같다. 이상 일이 마침					





과 경당의 멤버들은 어땠을까요? 솔피바람의 고등학교 전선(4학년)양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Q. 대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점이 제일 힘들었어?

A. 아무래도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연습하고 주말에 하루 종일 더운 데서 연습하고 그런 게 힘들었지.

Q. 대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점이 제일 재밌었어?

A. 연습은 다 재밌었어(웃음). 장단도 재밌고 판도 재밌고……

Q. 이번 대회에서 의병이라는 주제로 공연을 했다고 들었는데 새로 판을 만든 거야?

A. 이번 판은 원래 있었던 판으로 한 게 아니라 손 샘이의 병이라는 주제로 판을 새로 만드셨어.

Q. 대회 당일 느낌이 어땠어?

A. 막 떨리진 않았는데, 그냥 잘할 수 있겠지? 하는 그런 기분이었어.

Q. 공연 때 연습한 만큼 보여 준 거 같아?

A. 공연 때 엄청 잘했어.(웃음) 다른 팀 공연하는 거 보고 주눅 들어 있기도 했었는데, 오히려 승부욕 때문에 더 잘한 것 같아.

솔피바람 공연 때 정말 멋있습니니다. 공연장에 있던 모두가 푹 빠져서 공연을 봤었죠. 솔피바람의 매력은 끝이 있을까요?

경당의 이야기도 들어 볼까요? 같이 참여한 경당의 당수(회장) 박성현(4학년)양의 이야기를 들어 보죠!

Q. 대회 준비를 하면서 어떤 점이 제일 힘들었어?

A. 시간이 너무 없었어. 가정 학습하고 2주 뒤가 대회였는데, 알람을 너무 늦게 받아서 준비하는 데 힘들었어. 시간이 부족하니깐 연습을 많이 못 해서 솔피바람이랑 연습할 때도 많이 우왕좌왕했던 거 같아.

Q. 대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점이 제일 재밌었어?

A. 연습이 재밌었던 사람도 있었겠지만 너무 급하게 준비하고, 아침에 연습하고, 그래서 그런지 다들 많이 지쳤어. 생각해 보면 딱히 재밌었던 점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아쉬워.

Q. 대회에서 연습한 걸 다 보여 준 것 같아?

A. 연습 때는 다들 힘들어서 조금 흐물흐물해져 있는데, 대회 당일에는 다들 기합도 완전 크게 넣고 동작에도 힘이 들어가 있었어. 연습했던 걸 다 보여줬던 것 같아서 만족하고 있어.

Q. 대회 때 만족스러웠던 점은 뭐야?

A. 이번에 경재가 상을 받았는데 상을 받은 경재와 파트너였던 태윤이가 정말 잘했어. 서로 호흡도 잘 맞았고, 그만큼 연습도 많이 했고. 같이 연습했던 내가 봐도 멋있었어.

Q. 대회가 끝났는데, 끝난 소감이 어때?

A. 좀 허무한 것 같아 그냥 재밌었는데 하고 솔직히 끝났다는 사실이 실감이 안 났어. 그냥 이제 밥먹으러 가네 하고 밥먹으러 간 거 같아.(웃음) 물론 이 대회 말고도 모든 대회들이 끝나면 좀 허무해지는 것 같아.

경당도 대회 때 멋있었습니다. 기합을 지르며 달려나와서 각종 무술을 연마하더니 마지막으로 활을 쏘고 사라졌는데, 정말 반할 뻔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솔피바람의 담당 쌤이자, 이번 대회의 총책임자이신 손 샘의 이야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Q. 솔피바람이 이번에 대회를 못 나갈 뻔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A. 솔피바람에서 이번에 나갔던 대회가 충북 민속 청소년 예술제인데, 전에는 일반 학교만 출전이 가능했어요. 우리 학교는 대안학교라 못 나간다는 사실을 당연히 몰랐었죠. 대회 출전 제의도 제천시로부터 받았고……. 당연히 상수도 못 했었어요. 나중에 제천시에서 충북교육청에 연결해 보니 출전이 안 된다고 통보가 왔다, 그렇게 들었죠. 그래서 교육청에 항의를 해서 일반 학교만이 아니라 청소년 단체, 비인가 대안학교도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Q. 대회에 나갈 수 있다고 했을 때의 기분이 어떠셨나요?

A. 처음에 대안학교여서 출전이 안 된다고 했을 때 화가 났었는데, 대회에 나갈 수 있게 되어 나가고 나니 인정을 받는 듯해 기뻐요. 게다가 경연대회를 나가는 건 솔피바람의 역사상 처음이어서 새로운 도전이 된 것 같고, 이

번 대회에서 다른 팀들이 한 공연을 보고 자극을 받아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Q. 풍물놀이 판을 어떻게 구성했나요?

A. 의병이라는 주제로 판을 만들었어요. 우리 지역의 전통 가락을 쓰고 우리 지역의 의병을 재현해서 풍물놀이를 했다는 사실이 상당히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Q. 솔피바람이 이번 대회처럼 학교 밖에서 공연을 할 계획이 있나요?

A. 10월 28일에 제천 청소년 어울림 마당에 초청받아 공연을 하고 매년 해오던 선림 교회에서 추수감사제 공연도 합니다.

솔피바람의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됩니다!! 솔피바람이 대회에 나갈 때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래도 무사히 대회를 마쳐서 정말 다행입니다. 솔피바람뿐만 아니라 경당, 도와준 사람들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던 대회인 만큼 여러사람들한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회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의 수고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은 동아리들이 학교 안에서만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길 바랍니다! 🙌

청소년이 주인이다!

이한결 기자(3학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100만 명의 함성이 울려 퍼진 11월 12일 민중 총궐기(3차 범국민 대회). 그 속에는 100명의 간디인들이 있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뜻깊었던 제천 간디의 민중 총궐기를 되짚어 보자.



• 오전 11시

오전 11시, 민중 총궐기에 갈 준비에 모두 바쁘다. 서울로 가기 위해 간디인들 모두 관광버스에 올라타기 시작했다. 여러 지역에서 서울로 모이기 때문에 교통이 혼잡할까 봐 집회 장소인 광화문에서 떨어진 올림픽 공원에 차를 세우는 이동 경로였다. 버스가 출발했고, 오랜만에 가는 서울 나들이에 들뜬 학생들은 신나게 떠들다가 모두 금방 잠이 들었다.



• 오후 2시

3시간이 지난 끝에 서울에 있는 올림픽 공원 역에 도착. 모두 버스에서 내린 뒤 지하철을 이용해 이동했는데, 전국민 촛불 행진을 하기 전 광화문 주변에선 청년 시국대회, 농민 시국대회 등 다양한 시국대회가 열렸다. 이날 간디대학교 학생들은 청소년 시국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종로로 이동했다.



• 오후 3시

모두 종로에 도착했다. 청소년 시국대회는 3.1운동 당시 학생들이 조선 독립만세를 외쳤던 탑골공원 옆 도로에서 진행했다. 우리가 도착했을 당시 3,000명의 청소년들이 모여 있었으며, 막바지에는 5,000명 가량 모여 있었다고 한다. 다른 대안학교 친구들의 얼굴도 많이 보였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춤과 노래 공연이 시작을 열었으며, 전국 각지에서 모인 지역별 대표 청소년들이 연설로 대통령의 퇴진과 청소년들의 권리를 요구했다. 모두 웃기도 화내기도 하며 연설에 집중했고, 간디인들은 무대에 오르지 않는 않지만 연설에 맞춰 열심히 함성과 구호를 외쳤다.



• 오후 5시

2시간의 시국대회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범국민 대회가 시작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광화문으로 모이기 시작했고 광화문 주변의 도로는 사람들로 꽉꽉 차 들어갔다. 이때 부터 간디인들은 흩어져 원하는 곳에서 본격적인 시위를 시작했는데, 주최측에서 제공한 피켓을 들고 다니는 간디인들이 대다수였지만 본인이 직접 피켓을 만들어와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다.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 일행을 놓치는 사람들도 있었고, 사람들에게 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학생들이 많아 모이기로 한 약속 장소만을 남겨둔 채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 오후 6시 30분

친구들과 식당에서 저녁을 먹은 뒤 다시 행진에 참여했다. 80만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소리가 들렸고, 식당을 나오니 주위는 사람들로 붐볐다. 우리는 사람들로 뺨뺨한 도로에서 모두 구호를 외치며 광화문으로 향했다. 타악기를 두드리며 행진하는 사람들, 큰 스크린에 영상을 틀며 퇴진을 요구하는 사람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외국인들 등 다양한 사람들을 지나치며 어느덧 청와대로 향하는 사거리까지 도착했다.

• 오후 7시 30분

청와대로 향하는 사거리는 인파로 가득 찼다. 하지만 경찰 측에서는 청와대 진입을 막기 위해 길을 막아 놓았고 사람들은 퇴진을 외치는 구호 소리로 사거리를 덮었다. 경찰이 길을 열어 주지 않자 사람들은 진입을 요구했고, 퇴진을 외치는 소리와 청와대로 진입하게 해 달라는 요구를 돌아가며 반복했다.

• 오후 8시

제천으로 출발하는 시간인 9시에 늦지 않기 위해 아쉬움을 뒤로하고 사거리를 떠나 약속 장소인 올림픽 공원으로 출발했다. 역시나 지하철 역안에는 사람들로 꽉 차 있었고, 결국 9시를 넘겨 올림픽 공원에 도착했다.

• 오후 10시

올림픽 공원으로 모든 간디인들이 모였고, 사람들을 태우고 버스는 서울을 떠나 학교로 출발했다. 그렇게 6시간의 민중 총궐기를 마치고 모두 뿔아떨어진 채 학교로 돌아갔다.

[민중 총궐기를 마친 간디인의 소감]

1학년 박연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밀려다닌 것 같지만 좋은 경험이었어요.

3학년 유한울: 오늘 정말 사람이 많이 왔어요.

청소년, 나라의 주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 너무 멋있습니다. 박근혜 하야해라.

5학년 이예슬: 너무 힘들었어요. 박근혜 하야해라.

6학년 송륜근: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한 역사에 참여하게 된 것 같아 영광입니다.

우리는 학교를 벗어나 넓은 세상에서 목소리를 냈고, '청소년이 주인인 나라를 요구했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입 맞춰 소리 내었던 그날이 간디인 모두에게 깊게 기억되었으면 좋겠고, 청소년이 주인인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더욱 좋겠다. 마지막으로, 제천 간디학교 6학년의 시국 선언문을 올리며 기사를 마치겠다. 🙏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 박근혜 정부 권력형 비리를 규탄하는 제천 간디학교 6학년 시국 선언문 –

2016년도 제천 간디학교 인문학 캠프 주제로 나왔던 질문 중 하나는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기대 되는가?’였으며, 그 답 중 반은 ‘기대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시골 학교에서 핸드폰을 보며 히히덕거리길 좋아하는 우리에게도 깜깜한 미래가 다가옵니다. 대안학교를 졸업해도 꿈을 꾸다는 건 여전히 사치스러운 일입니다. 대학을 가는 것도, 가지 않는 것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취직을 하는 것도, 하다못해 집에서 노는 것도 전부 어두운 미래입니다. 어떤 뉴스도 우리 미래를 밝혀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최순실 게이트는 우리의 작은 촛불마저 꺼트리는 사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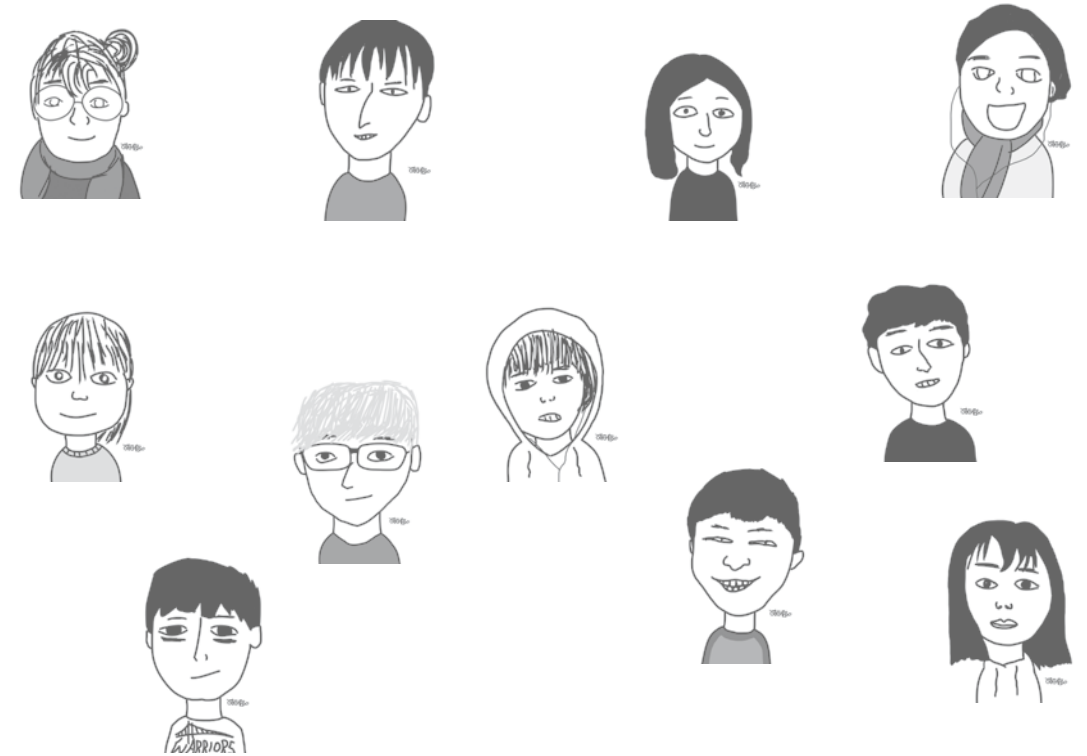
최순실 게이트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연설문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국가를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이 통치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며 깊은 허무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아동비동 살아갈 사회는 한 권력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통일과 북한에 대해 공부하며 중북 프레임으로 사건을 덮으려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또 FTA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공부하며 백남기 농민이 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에 대해 공부하며 6월 항쟁과 민주화 운동을 왜 기억해야 하는지, 또 지금의 우리는 그때처럼 나서지 않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투표가 최순실과 박근혜 정부에게 유리되었습니다. 스무 살이 되어 얻게 될 투표권이 남영동에서, 명동 성당에서, 수많은 거리 곳곳에서 외치며 흘린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투표로 만들어질 세상이 한 사람으로 인해 모든 것이 좌우되는 나라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어둠이 영원히 걷히지 않으리라 믿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온 역사는 끊임없이 행동하는 개인과 개인이 모였을 때 촛불이라도 하나 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계천 광장으로 향합니다. 아무도 밝혀 주지 않는 미래, 직접 밝혀라 갑니다.

– 2016년 10월 29일 제천 간디학교 6학년 일동



4부 이모저모

스케줄러

기자 후기

Scheduler

9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4	5 뭐이리 인정이 없냐	6	7	8 노무중가발표 파파 파이팅!!	9	10 추석
11	12 가	13 재경	14	15 웃수 웃수	16	17 추석	
18	19	20	21	22	23	24 미지정 대회출전!! 어.....	
25 산동학교 교류생-음 음	26	27	28	29	30 솔미&경당 대회출전!!		

Scheduler

가나다라가나다라가나다라가나다라 **십월** 라가나다라가나다라가나다라가나다라

		화	수	목	금	토
				가을 축제		1 MOVIE
2	3 가을 축제	4	5	6	7	8 대한교육 한바탕
9 한글날	10 간택이	11 5학년 가을축제 회식	12 1학년	13 2학년	14	15 장
16	17	18 목	19 금	20 간디 음악제	21 처사 반박 운동	22
23	24 지혜학교 교구 새인 무인	25	26	27	28	29
30	31	스	으	으	으	으

Schedulen

바라헤하 ~~~~~ 11월 ~~~~~ 바라헤하

월	화 1	수	목 3	금	토	일
학	학	학	가정학습	학	아...!! 상화	테드라인
7	8	9	10	11	13	
학	학 & 학	"ATA" 학	주간	민중총궐기 참가 퇴진!!		
14	15	16	17	20		
학생리봉헌 토론회	2차 테드라인	학생리봉헌 선거	금	김강	대 토론회	
21	22	23	24	25	26	27
				교과발표회	드디어!!!	
28	29	30	12월 1	2	3	4
		학		학	학	학

기자 후기

처음으로 혼자서 기사를 쓴 가을 겨울 호가 드디어 끝났네요!!!!!!
 너무 기쁩니다!! 아직도 제가 기사를 썼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힘들었던
 기사 쓰는 과정을 생각하니 끔찍합니다.ㅠㅠ 그래도 기사 후기를 쓰는
 이 순간만은 너무 행복합니다아!!!♥♥♥♥ 기자 언니, 오빠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사실을 다시 뼈저리게 느끼게 해 주는 한 호였습니다.ㅠㅠ
 다들 수고했습니다!!! 많은 도움을 줬던 한솔 언니와 민석 오빠, 청탁 글
 부탁 들어 준 모든 사람들 감사합니다! 일상다반사 파이팅♥



권윤서 (1학년)

반년만에 다시 기사를 쓰네요..... 하, 이번엔 여러 명이
 서 하는 특집 기사를 혼자 쓴 것 같아요. 힘드네요. 다음
 호에는 이런 명칭한 짓 안 하려고요. 일상다반사 수고하
 셧고요. 그럼, 이만 기자 박우제는 물러갑니다~



박우제 (2학년)

이번 기사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혼자 쓰는 기사라 부담이 조금 컸던 것 같아요. 편집장님
 의 "성민아, 기사 써~"라는 말이 그렇게 무서운 건지 처음 알았네요ㅋㅋ 그래도 재밌게 인터뷰
 하고 설정 잡아서 글 썼던 것 같아요. 원래 인터뷰에는 더 재미있는 내용이 많았는데 줄이다 보
 니 많이 사라진 것 같아서 아쉽긴 하지만, 처음 혼자 쓴 기사치고는 만족합니다. 하하. 인터뷰해
 준 창하, 진주 언니, 하진 언니, 한별이, 성일이, 주열 오빠, 시훈 오빠, 덕래 쌤, 담 오빠, 재형 오
 빠, 승훈 오빠, 선 언니, 동석 쌤, 미리강, 창기 오빠, 재성 오빠 정말 고맙고, 인터뷰도 해 줬는데
 멋있는 포즈도 잡아 준 태은 언니, 지현 언니 고마워요 <3



이성민 (1학년)

처음으로 글을 썼습니다. 어렵네요.
 그러므로 박근혜 하야하러!!!!



김담 (2학년)



김재하 (2학년)

와아....., 진짜 이번 호는 제가 일상다반사에 들어오고 나서 제일 할 게
 많고 제일 힘들었던 호였어요..... 스케줄러 석 달치에 기사 후기 그림
 11개에 기사 삽화 3건에.....,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마감을 지킬 수
 있다고 큰소리쳐 놓고서는 일주일이나 미루고....., 그것도 2차 마감일
 몇 시간 전에야 일을 마쳤습니다. 기자님들, 이번 호도 수고하셨고, 무엇보다
 이 많은 일을 끝내는 데에 성공한 김재하 진짜 수고했습니다. 다음
 호도 열심히 해 봅시다. 파이팅 (CURRY!!!!!!!!!!!!)